

광 고

# 원양산업

제 1161 호  
(2023년 9월 15일 발간)

창간: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비매품)

## Contents



### 협회소식

- 제4차 원양산업발전 종합계획 간담회 참석 / 4
- 종합계획 업종별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 5
- 2023 제2차 수산분야 CEO 초청 세미나 개최 / 6
- 솔로몬·투발루와 2024 어기 참치 입어 협상 / 7



###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23년 8월 보고 내용 / 8

#### ■ 요리 만들기

- 참치포케 / 11



### 해외수산정보

#### ■ 국제유가 동향

- 9월 MGO 싱가포르 벙커 가격 전월 대비 상승 / 12

#### ■ 참치어업 동향

- 8월 말 방콕 가다랑어 가격, 톤당 1,980 달러 / 13
- 8월 만타 가다랑어 가격 톤당 1,920 달러 / 13
- 日 7월 냉동 눈다랑어 수입 가격, kg당 738 엔 / 14

- 세이셸 가다랑어 가격 톤당 1,685 유로 / 14
- 황다랑어 8월 가격, 톤당 2,400~2,450 유로 / 15
- 중서부태평양 7월 선망 어획량 약 8만톤 / 15
- 중서부태평양 7월 가다랑어 전재량 감소 / 16
- 美 태평양 선망선단, 척수어획량 매년 감소 추세 / 16
- 日, 7월 냉동참치 수입 통계 발표 / 17
- 美 의회 보고서, IUU 어업국에 엄중 조치 경고 / 18
- 모잠비크, 해외 선망어업 입어로 인하 / 19
- 바누아투, 자국 EEZ에 선망선 대상 VDS 도입 / 19
- 타이유니온 순이익 급감, 참치 통조림 판매 개선 / 20
- 美 2분기 참치 통조림 수입 비용 급상승 / 20
- 가다랑어 어획 감소로 상반기 태국 참치 공급 감소 / 21
- 피지 학자, 남태평양참치조약에 의문 제기 / 21
- 中, AI-기계학습 참치 분류법 연구 / 22
- IOTC, 中 연승선 IUU 어업 의심 행위 조사 / 22
- 中 정부, Kaichuang社에 보조금 579만 달러 지원 / 23
- 中 선사, 선망선 2척 신조 계약 체결 / 23
- 기후 변화, 참치에 부정적 영향 우려 / 24
- FDA, 통조림 배수 중량 방법 제안 / 24
- 생분해성 젤리-FAD, WCPO에서 테스트 완료 / 25

## Contents

• NOAA, 혼획 감축 위해 신형 연승 장비 테스트	/ 25	• G20 정상, 글로벌 최저 관세에 합의	/ 35
• 해양 온난화로 황다랑어 서식지 축소 우려	/ 26	• FAO “세계 어류 생산량, 2032년 2억톤 예상”	/ 36
• 오메가3 지방산, 폐 건강 유지 효과	/ 27	• 러, 8월 중순 시점 어획량 13% 증가	/ 36
• 日산 참치 구매 감소 조짐	/ 27	• 호주 AF社, 메로 조업 신조선 건조	/ 37
<b>■ 오징어어업 동향</b>		• 러 대통령, 생선 소비 촉진 개발 지시	/ 38
• 中 냉동 살오징어류 가격 전월 대비 하락세	/ 28	• 러, 투자 쿼터 2단계로 60척 건조 계획 발표	/ 38
• 포클랜드 제도 로리고 오징어 시즌 조기 마감	/ 28	• 日 산업부 장관, 자국 어업 대상 추가 지원 암시	/ 39
• Oceana, 중국의 오징어 조업 유예를 비난	/ 29	• 日, 금수조치로 인한 수출 감소도 피해배상 포함	/ 39
<b>■ 명태어업 동향</b>		• 러, 국내 시장 생선소비 변화	/ 40
• 러, 중국으로 수산물 수출 증가에 집중	/ 30	• 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우려 없어”	/ 40
• 러 명태 연육, 中, 韓 시장에서 美 대체	/ 30	• 러, 정어리, 고등어, 대구: 수산업 소식	/ 41
• 러, 中 어류 수출 지난해 대비 15배 증가	/ 31	• 日,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 중국에 불만 제기	/ 41
• 러, 中 생선 수출 팬데믹 이전 수준 초과	/ 31	<b>■ 쉬어가는 난 (시)</b>	
<b>■ 꽁치어업 동향</b>		• 〈바닷가에서〉 - 오세영	/ 42
• 日 8월 꽁치 어획, 전년 동월 대비 증가	/ 32	<b>■ 국내 수산 정보</b>	
• 日, 8월 17일 꽁치봉수망 대형선 첫 출항	/ 32	• 8월 오징어 국내 동향	/ 43
• 日 도요시시장 꽁치 가격, 30% 상승	/ 33	• 8월 명태 국내 동향	/ 45
• 日 꽁치봉수망 중·소형선, 올해 첫 양륙	/ 33	• 해수부, 북태평양 공해까지 방사능 검사 실시	/ 47
<b>■ 각국 수산 동향</b>		• 2023년 원양어업 생산량 감소, 총수출액 증가	/ 48
• Intrafish, 국제 수산물 판매 동향 및 전망 분석	/ 34	• 정부·수협·유통업체, 수산물 소비 활성화 협력	/ 48

## 제4차 원양산업발전 종합계획 간담회 참석

KMI 연구 발표 및 업계 의견 청취



제4차 원양산업발전 종합계획 간담회가 8월 18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주최로 진행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양수산부 이재영 원양산업과장과 2명, 국립수산물과학원 이재봉 원양자원과장, 부경대학교 이성일 교수, KMI 정명화 수산정책연구실장과 4명이 참석하였다. 원양업계에서는 13개사에서 14명이 참석하였고, 우리 협회에서는 운명길 협회장, 이형균 경영지원본부장, 이성재 부산지부장 외 2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KMI에서 연구한 제4차 원양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계획 발표를 진행하고, 이에 대해

업계 차원에서 검토 및 분석이 필요한 현안 관련 의견을 청취할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우리 협회와 업계에서는 해기사 인력 부족 문제 해결방안 강구, 선박 신조 시 상환 기간 등 선박 노후화 문제 해결,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 대책 등 필수 현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운명길 협회장은 원양산업발전 종합계획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업종별 현황 문제점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되기를 희망하며, 아울러 연구용역 담당 책임자(KMI 수산정책실장)가 협회 또는 선사 임직원들과 협의하여 동 발전계획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제4차 원양산업발전 종합계획 업종별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콩치오징어북양업계 회의 진행...참치남빙양 회의 차후 진행



제4차 원양산업발전 종합계획 관련 업계 의견수렴 간담회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주관 하에 추진 중이다. 8월 18일 제4차 원양산업발전 종합계획 간담회 이후, 업종별로 세부적인 업계 현황 및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것이 해당 회의의 목적이다.

8월 31일 협회 부산지부에서 콩치붕수망오징어채낚기 업계 간담회가, 9월 8일 부산 타워힐호텔에서 북양트롤업계 간담회가 진행되었고, 남빙양참치연승참치선망 업계 간담회가 향후 각 업종별로 추가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오징어채낚기 업계 회의에는 KMI 정명화 실장 외 1명, 업계 9개사 10명, 협회 이형균 경영지원본부장,

이성재 부산지부장 외 1명이 참석하였다. 콩치붕수망 업계 회의에는 KMI 정명화 실장 외 1명, 업계 6개사 6명, 협회 이형균 경영지원본부장, 이성재 부산지부장 외 1명이 참석하였다. 북양트롤업계 회의에는 KMI 정명화 실장 외 1명, 업계 3개사 6명, 협회 이형균 경영지원본부장 외 1명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는 현행 조정관세 지속 유지 △ 해기사 및 선원 인력 부족 문제 해결 △ 모든 선사가 동참 가능한 신조 정책 및 여건 마련 △ 선박안전펀드 거치 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 △ 입어료 지원 △ 선박 계류지 확보 △ 조업 지속 불가한 선박 구조조정 문제 등의 건의사항이 제시되었다.

## 2023 제2차 수산분야 CEO 초청 세미나 개최 기후변화 대응 및 블루푸드 가치 등 논의



우리 협회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수산무역협회와 공동으로 '2023 수산 CEO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정부와 연구기관, 기업이 함께 주로 수산수출업계가 당면한 현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서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 한국수산무역협회 배기일 회장을 비롯하여 국내 수산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윤명길 협회장, 신현애 해외협력본부장, 이형균 경영지원본부장 외 2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한인성 과장과 「블루푸드의 영양학적 가

치」라는 주제로 이화여대 김양하 교수의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KMI 김종덕 원장의 주재로 수산기업 CEO들과 토론이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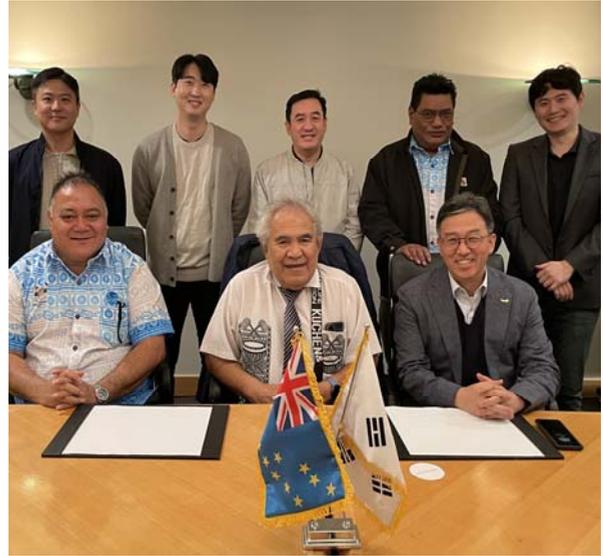
토론에서는 △가치소비에 대응한 블루푸드의 영양학적 가치 발굴 지속, △ 협회 중심의 다양한 홍보 진행 필요성, △수산업 분야 기후변화 연구 고도화의 중요성 등이 논의됐다.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은 “수산업계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연구기관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KMI 김종덕 원장은 “KMI는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수산분야 현안 논의를 위한 민관연 간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솔로몬·투발루와 2024 어기 참치 입어 협상

## 2024 어기 입어 조건 합의



한국과 솔로몬, 투발루 간의 2024 어기 참치 어업 입어 협상이 진행되었다.

한국-솔로몬 입어 협상은 8월 19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진행되었다. 솔로몬 측에서는 Nestor Ghiro 솔로몬 수산부 장관, Edward Honiwala 수산부국장, Rosemary Maefiti Soma 수산부 법률자문이 참석하였고, 한국 측에서는 동원산업 이상범 부장(수석대표), 외 1명, 사조산업 이경영 부장 외 1명, 신라교역 마현진 대리가 참석하였으며, 우리 협회에서는 최봉준 과장이 참석하였다.

한국-투발루 입어 협상은 8월 21일부터 8월 23일

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진행되었다. 투발루 측에서는 Hon. Kitiona Tausi 투발루 수산교역부 장관, Mr. Nikolasi Apinelu 수산교역부 차관, Mr. Sam finikaso 수산청장, Mr. Isala tito Isala 법률자문이 참석하였다. 한국 측 참석 명단은 솔로몬 입어 협상과 동일하였다.

우리 측은 솔로몬, 투발루 측과 2024 어기(2024년 1월 1일~12월 31일)의 조업일수·가격 등 입어 조건에 합의하였다. 투발루 측과는 주요 합의 결과를 이번 회의록에 서명한 후, 12월 WCPFC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거친 다음 입어 약정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8월)

##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관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관  
나. 참치가격 동향

가. 유류가격 동향(조사일 8.25)

공급	가격	유종
다카르	664유로	경유

어종	규격	가격(\$/톤)
가다랑어	3.4kg~	1,800
	1.8~3.4kg	1,750
	1.5~1.8kg	1,600
황다랑어	10kg~	1,950
	3.4~10kg	1,850
	1.8~3.4kg	1,750
눈다랑어	10kg~	1,800
	3.4~10kg	1,800
	1.8~3.4kg	1,750

##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관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중국, 협력 방안 모색

- 피지 교육부는 중국이 태평양 도서국 관련 연구 계획을 강화하는 등 도서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나. 피지, 관광부분 강세 지속

- 피지 중앙은행의 8월 경제리뷰에 따르면 피지 방문 외국인, 호텔 점유율, 객실 수익 등이 2019년과 2022년 수준보다 높은 추세로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비고
날개다랑어	10kg 상	2,800	로인가공용(PAFCO)

라.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TOTAL	1,014\$/톤	MGO	'23.9.8

##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물관



오시영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어업 동향

- 금월 아메리칸사모아 및 연근해 어장인 쿡아일랜드 어장에서의 날개다랑어 어획량은 0.5-1톤, 황다랑어 및 눈다랑어의 어획량은 0.1-0.3톤이다.

나. 어업 동향

- 서태평양지역어업관리위원회(WPRFMC) 발표에 따르면 2022년 황다랑어와 날개다랑어의 어획량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날개다랑어 어획량이 28% 증가하고 단위 노력당 어획량은 59% 증가하였다.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조사일
Clipper; Oil	\$3.19(gallon)	'23.9.7

라.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비고
황다랑어	라운드	2,050	
눈다랑어	라운드	1,850	
가다랑어	라운드	1,850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관

가. 저인망 트롤 어업 추가 제재

- 뉴질랜드 북섬에 위치한 하우라키만 해양공원의 구역 중 25%는 저인망 트롤 어업이 금지되어 있으나 이 금지구역을 최대 89%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다.

나.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톤)	유종	조사일
Z	1,196	MGO	'23.9.6

다. 어류가격 동향

어종	규격	단가(\$/톤)	비고
Hake	2L	4,100	-
	L	3,950	
	M	3,200	
	S	2,450	

이상우 아르헨티나 명예해양수산관



이상우  
명예해양수산관

가. 칠레·아르헨티나간 영토분쟁 재발

- 칠레 해군수로해양국이 8월 14일 공개한 관할 해역 그래프에 말비나스, 남극대륙, 남대서양 제도 및 티에라델푸에고 해역을 포함시켜 아르헨티나 외교부는 동 그래프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나. 오징어 어업 동향

- 오징어 채낚기 선박 선장, 아르헨티나 EEZ에서 어획한 150~270g 사이의 상업적 가치가 없는 어획물 불법 폐기하였다고 폭로하였다.
- 올해 오징어 어탐 및 채산성 부족으로 말비나스 등 어장에서 조기 철수하였다.

다.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관리 조치 결의

- 아르헨티나 연방수산위원회는 이빨고기 치어 비율이 전체 어획량의 1.5% 혹은 5톤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물량에 대한 하역 및 가공/수출 제한 결의안을 발표하였다.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관



이윤홍  
명예해양수산관

가. 금어기 종료

- Volta 지역의 Ketu 남부 지방 자치 지역인 Adina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통 어업 대상 금어기, 7월 1일에서 8월 31일간 상업 트롤 조업을 대상으로 한 금어기가 종료되었다.



나. 부정확한 보고 개선 필요

- 가나 대통령은 2022년 이후 해상에서 해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기니만에 지속되는 해적 사건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다. 해양 범죄 감소 위한 혁신 기술 필요

- 대통령은 불법어업이 인신매매, 무기 및 마약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아 범죄의 연결 고리를 끊고 해양을 보호하기 위한 혁신 기술을 활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라.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kl)	유종	조사일
양상급유	1,090달러	MGO	'23.8.31

마.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10kg~	2,500
	~10kg	2,000
가다랑어	3.4kg~	1,770
	1.8kg~	1,720
	~1.8kg ~1.5kg	1,570 1,420

- 중국 국적선의 진입이 한층 더 고무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트롤선들이 진입이 완료되었다.
- 이는 수산청 이사회 및 직원들의 부패와 중국의 영향력 증가를 의미하며, 정치가 결부된 정책으로 예상된다.

나. PNG 수산업 현황

- 현지 수산업체의 발전이 더딘 것은 낙후성에 있으며, 이는 인력부족, 사회 인프라 부족, 시장 정보 부족, 국내 산업 낙후, 정부의 부정부패 및 무능, 자립 의지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

< 게재순서: 명예해양수산물 성명 가나다순 >

정승화 파푸아뉴기니 명예해양수산물관



정승화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수산업 외국인 투자 확대

- 자국산업 보호 조치를 이어왔던 수산청이 2023년부터 중국 연승선의 진입과 외국어선의 직접 조업을 허가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 참치포케



###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 오이 1/4개, 아보카도 1/2개, 적채 1/6개, 방울토마토 8개, 병아리콩 2T, 라임 1조각, 레몬 1조각, 샐러드용 야채 1컵, 현미밥 1/2공기, 오리엔탈드레싱 1T, 딜 1줄기, 견과류 1T

<참치 마리네이드 재료>

참치 등살 필렛 200g , 레몬즙 1t, 소금 1t, 후추 1t, 딜 1줄기

###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참치를 깍둑썰기 해 올리브오일, 레몬, 소금, 후추, 딜을 넣고 마리네이드 한다.
- ② 샐러드용 야채는 한입크기로 손질하고 적채와 아보카도는 채 썰고, 오이 동그랗게 썰고,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자른다.
- ③ 그릇에 현미밥-> 2의 손질된 샐러드와 야채를 둘러 담고 가운데 참치와 레몬을 올린다.
- ④ 빈, 공간에 병아리콩과 레몬, 견과류를 올리고 오리엔탈드레싱을 뿌려 완성한다.



# 9월 MGO 싱가포르 벙커 가격 전월 대비 상승

## 9월 8일 기준 945 달러

9월 12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92.18 달러, WTI 가격은 88.84 달러, 브렌트유 가격은 92.21 달러를 기록하였다.

9월 8일 기준 싱가포르 선박용 경유(MGO) 벙커 가격은 톤당 945달러로 8월 7일(874 달러) 대비 8% 상승하였다.

9월 평균(9.1~9.8) 가격은 931 달러로 전월 평균(8.1~30) 903 달러 대비 약 3% 상승하였다. 전년 9월(9.1~30) 평균과 비교해서는 3% 하락했고, 전전년 9월과 비교해서는 53% 상승하였다.

2023년 평균(1.1~9.8) 가격은 787 달러로 전년(1.1~12.31) 평균 대비 24% 하락하였고, 전전년 평균 대비 35%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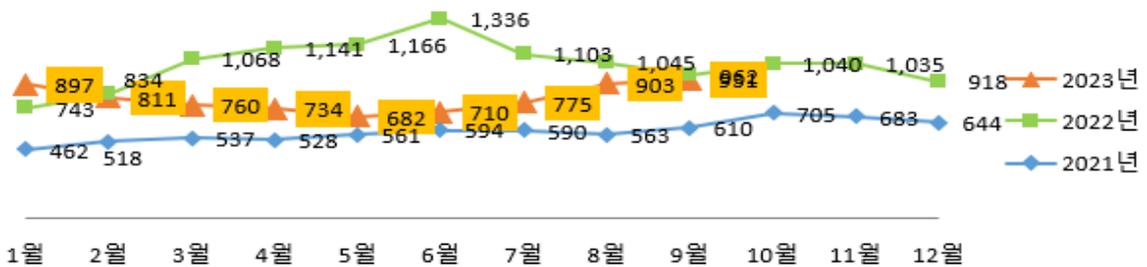
고유가 추세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산유국 감산이다. 특히 사우디는 최근 감산을 연말까지 연장

한다고 발표해 시장에 큰 충격을 줬고, 러시아는 하루 30만 배럴 감산을 올해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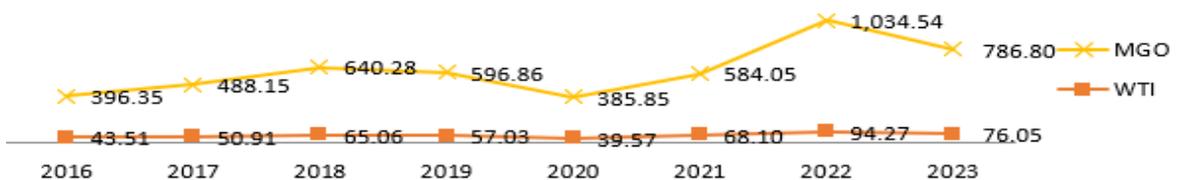
한은은 지난달 24일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국제유가(브렌트유 기준)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배럴당 평균 84달러 수준을 유지하다가 내년 하반기 82달러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지난 5월 전망 대비 소폭 낮아진 것인데, 여기엔 중국 경기 둔화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경기 회복을 위해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어 앞으로도 유가 하락이 이어질지는 장담하기 힘들다.

다만 일각에선 국제유가 상승에는 감산 외에도 허리케인, 폭염 등 문제 등 일시적 요인도 있었고, 여기에 이란이 증산에 나설 가능성도 있으며, 사우디도 지나친 고유가는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유가가 결국 안정세를 찾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 월평균 싱가포르 벙커 가격 〉



〈 연평균 MGO 벙커, Brent, WTI 가격 〉





## 8월 말 방콕 가다랑어 가격, 톤당 1,980 달러 계속되는 낮은 수요 원인

태국 방콕의 가다랑어 가격은 계속되는 공급 부족 및 가공업체의 미온적인 수요 속에서 소폭 하락하였다.

8월 말 주요 가공업체의 방콕 냉동 가다랑어 원어 계약은 전월 대비 2% 하락한 톤당 1,980 달러 선에서 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규모 가공업체가 동일한 가격에 계약할지, 아니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지는 불확실하다.

가다랑어 가격이 톤당 2,000 달러 미만을 기록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처음이다. 작년 8월 가다랑어 거

래 가격은 현재 가격보다 280~480 달러 낮았다.

태국의 한 가공업체에 따르면 다수의 방콕 가공업체들이 2교대를 가동하지 않고, 전체 가동 능력의 70%만을 가동하고 있으며, 가공업체의 원어 수요는 낮은 상태를 유지 중이다.

주문이 들어오고 있기는 하나 많은 양은 아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을 비롯하여 주요 시장에 대한 태국의 참치 통조림 수출은 7% 감소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8월 30일자

## 8월 만타 가다랑어 가격 톤당 1,920 달러

### 7월 가격대 유지

에콰도르 만타 냉동 가다랑어 원어 1.8kg 이상의 8월 가격은 톤당 1,920 달러로, 7월 가격대를 유지하였다. 일부 어업 전문가에 따르면 보다 낮은 톤당 1,900 달러에 계약이 체결될 조짐이 보인다. 7월에는 금어기(veda) 및 엘니뇨 시작에 대한 비관적 전망으로 인하여 가격이 5.2% 상승하였다.

가다랑어 어획량 호조(특히 2023년 1분기)로 인하여 에콰도르 참치 가공업체들은 어획물을 가공 및 보관하여 금어기가 끝나는 10월 8일까지 주문량을 납품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 출처: Atuna, 2023년 8월 18일자



## 日 7월 냉동 눈다랑어 수입 가격, kg당 738 엔 전년 대비 28% 급락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참치류의 7월 수입 실적은 선어, 냉장 제품 수입량 623톤(전년 동월 대비 9% 증가), 수입액 11억 1,500만 엔(4% 증가), 냉동 제품 1만 825톤(3% 감소), 수입액 97억 7,900만 엔(26% 감소), 가공품 4,276톤(0% 감소), 수입액 37억 2,600만 엔(13% 증가)을 기록하였다.

냉동 눈다랑어 GG(아가미, 내장 제거)의 kg당 수입 단가는 738 엔(전년 동월 대비 28% 하락)으로 급락

하였다. 수량이 가장 많은 대만산의 가격 또한 743 엔(30% 하락)으로 급락하였다.

냉동 제품 수입 감소는 어획량 감소 등의 이유로 반입량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냉동고 수용 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운반선들이 양륙을 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지 대형소매점 바이어들은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3년 9월 6일자

## 세이셸 가다랑어 가격 톤당 1,685 유로

### 황다랑어 톤당 2,050 유로

인도양 7월 가다랑어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황다랑어 가격은 하락하였다.

인도양의 7월 어획량은 지난 20년을 통틀어서도 매우 적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일부 선망선은 전년 7월 대비 20%에 불과한 수준의 어획량을 기록하였다. 세이셸 및 공해 FAD 어획량은 좋지 못하였다.

세이셸 냉동 가다랑어 원어 1.8kg 이상의 가격은 톤당 1,685 유로(약 1,843 달러)로 전월 가격(톤당 1,675 유로)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원어 재고는 매우 부족한

상태로, 세이셸과 모리셔스 가공업체는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황다랑어의 경우, 7월 초에 대형이 대량으로 잡혔으나 쿼터 소진에 거의 도달하였기 때문에 어획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시적인 초과 공급으로 인하여 황다랑어 원어 가격은 톤당 2,050 유로(약 2,242 달러)로 이전 가격 대비 약 100 유로 하락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8월 15일자



## 황다랑어 8월 가격, 톤당 2,400~2,450 유로 7월 대비 톤당 150~200 유로 하락

남부 유럽으로 운송되는 황다랑어 원어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인, 이탈리아로 운송되는 황다랑어 원어 가격은 CIF(비용, 보험, 송료) 기준 톤당 2,400~2,500 유로 수준이다. 2022년 8월에는 최고 수준인 톤당 3,300 유로를 기록하였다.

인도양 세이셸, 아비장, 대서양 가공허브인 코트디부아르 등지에서의 황다랑어 가격도 하락세를 보였다.

다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황다랑어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은 5~6월 인도양 황다랑어 어획량 상승이다.

한 소식통은 가다랑어 제품에 비하여 가격이 높은 올리브유 참치 통조림의 매출 감소 또한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해당 소식통은 “가공업체들은 매출이 2022년 대비 8~12%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중서부태평양의 황다랑어 어획량 호조로 인하여 황다랑어 로인 생산이 촉진되고 에콰도르 및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스페인, 이탈리아로 공급되며, 이는 가격 하락에 기여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8월 23일자

## 중서부태평양 7월 선망 어획량 약 8만톤 6월 대비 2만톤 이상 감소

중서부태평양 선망선단 7월 참치 어획량은 6월 대비 감소하였다. 스쿨조업 황다랑어 대형 어획량은 여전히 강세였으나, 가다랑어 어획량은 FAD 금어기로 인하여 감소하였다.

7월 나우루협정당사국(이하, PNA) 및 공해에서의 참치 선망 어획량은 8만 416톤으로, 6월 어획량(10만 9,067톤) 대비 약 25.4% 감소하였으나 5월 어획량(7만 9,779톤)보다는 많은 수준이었다. 2023년 1~7월 어획량 누계는 약 60만 7,000톤으로, 2022년 1~7월 어획량 누계 대비 31%나 급감하였다.

7월 어업 활동은 키리바시 수역에 집중되었다.

키리바시에서의 참치 어획량은 4만 1,000톤으로 7월 전체 어획량의 약 51%였다. 그러나 이는 6월 어획량인 6만 7,000톤에 비하면 40%나 감소한 수치이다. 공해 어획량은 2만 2,200톤으로 약 8% 증가하였다. 타 국가 EEZ의 어획량은 1만 7,500톤으로, 6월 어획량(2만 5,000톤) 대비 감소하였다.

선박일수제도(이하, VDS) 사용량은 2,995일로, 6월 사용량(2,910일) 대비 증가하였다. 일일 평균 참치 어획량은 22.3톤으로, 전월 및 전년 대비 모두 감소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8월 22일자



## 중서부태평양 7월 가다랑어 전재량 감소

### 7월 5만 5,855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7월 나우루협정당사국(이하, PNA) 항구에서 전채된 참치의 양은 총 5만 5,855톤이며, 이 중 상당수는 방콕 가공업체로 운송되었다. 7월 총 전채량은 6월 전채량(6만 541톤) 대비 8% 감소하였다. 2021년과 2022년 7월에는 더 많은 양이 전채되었으나, 그만큼 해당 월 중서부태평양의 선망 어획량 또한 훨씬 많았다.

마셜제도 수역에서 선망 어획량이 증가하면서 전채량 또한 증가하였다. 마셜제도의 전채량은 약 2만

1,800톤으로 전체 물량의 31%를 기록하였다. 한편 파푸아뉴기니 항구인 라에, 마당, 라바울 등의 전채량 총합은 1만 5,100톤이었다.

중서부태평양 동부 수역의 저조한 어획량으로 인하여, 키리바시 항구에서의 전채량은 6월 2만 5,000톤에서 7월 1만 5,000톤으로 급감하였다. 마이크로네시아의 전채량은 전체 전채량의 4%였다. 나우루, 투발루 EEZ에서는 작년 말 이후 전채량이 없었다.

\* 출처: Atuna, 2023년 8월 23일자

## 美 태평양 선망선단, 척수어획량 매년 감소 추세

### 선망선단 척수, 4년만에 절반 이하로 감소

미국 선망선단의 선박 척수와 어획량 급감으로 인하여 존속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8월 16~23일간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이하, WCPFC) 제19차 과학위원회 회의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선망어선의 수는 2018년 34척을 기록한 후 2019년 31척, 2020년에는 23척, 2021년에는 21척, 2022년에는 단 13척으로 감소하는 등 매년 감소세를 보인다.

어획량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2018년 어획량은

총 19만 4,779톤(척당 평균 5,728톤)이었으나, 2022년에는 5만 5,707톤(선망선 1척당 4,285톤)으로 감소하였다.

IATTC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선단은 2021년(17척)에 9,392톤, 2022년(25척)에 3,990톤의 참치를 어획하였다. 선박 등록부에 등재된 선망선단의 총 어획능력은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24,152톤와 2만 6,559톤으로 집계되었다.

\* 출처: Atuna, 2023년 8월 31일자



# 日, 7월 냉동참치 수입 통계 발표

## 한국산 눈다랑어 수입량 275톤

〈 2023년 7월 일본 냉동참치 수입 통계 〉

(단위: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날개 다랑 어	한국	-	96	99	217	155	244	73
	대만	27	4	281	473	437	21	492
	바누아투	-	1	131	198	353	-	1
	기타	105	42	3	-	31	125	253
	소계	133	144	396	888	975	391	818
황다 랑어	한국	173	217	262	92	58	505	329
	중국	54	338	265	304	177	537	583
	대만	1,295	1,668	1,245	1,793	1,865	1,240	655
	필리핀	987	245	74	122	121	-	-
	인도네시아	26	94	164	67	17	-	-
	미국	-	-	-	-	-	-	-
	바누아투	56	168	400	251	101	127	103
	피지	16	12	28	-	18	4	-
	키리바시	4	2	13	3	-	-	50
	마셜제도	180	1	197	-	267	124	-
	기타	1,662	692	3,465	1,106	1,975	1,781	1,253
소계	4,453	3,437	11,209	3,738	4,598	4,317	2,973	
눈다 랑어	한국	84	136	126	513	112	559	275
	중국	136	373	949	558	479	1,115	977
	대만	1,717	1,538	2,639	2,852	2,757	2,284	1,410
	필리핀	-	-	-	-	-	-	-
	인도네시아	1	30	8	8	7	-	-
	세이셸	562	280	137	364	368	686	298
	바누아투	41	309	484	613	232	82	62
	기타	36	82	40	117	52	151	226
	소계	2,578	2,748	4,385	5,026	4,007	4,918	3,247
남방 참다 랑어	한국	-	132	-	-	-	-	-
	대만	6	10	5	-	-	-	-
	호주	-	-	-	-	-	20	717
	소계	-	-	-	-	-	-	-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3년 9월 6일자



## 美 의회 보고서, IUU 어업국에 엄중 조치 경고

### IUU 및 강제노동 연루 국가 7개국 지목

미국이 최근 발표한 IUU 어업, 상어 및 거북 혼획, 강제노동 연루 국가를 판별하는 보고서인 '2023년 국제 어업 관리 증진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2년 동안 7개국(앙골라, 그레나다, 멕시코, 중국, 대만, 감비아, 바누아투)이 해당 혐의가 있는 것으로 지목되었다.

보고서는 중국 및 대만 국적선이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상어·바다거북 혼획 방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명시하였다. 연구 보고서는 중국, 대만 선단의 참치 및 수산 제품 관련 이주노동자 착취 혐의도 명시하였다.

멕시코는 자국 소형선단(lanchas)의 멕시코만 내 미국 수역 침입 및 불법 조업에 대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지적받았다.

보고서는 또한 ICCAT 관할 구역의 원양 연승어업

에서 바다거북 혼획 감축 규제를 실시하지 않은 국가로 스페인, 프랑스, 코트디부아르 등 14개국을 지목하였다.

미국은 해당 사안으로 지목된 국가들의 어선에 대해 "미국 항구 접근을 거부하고, 어류 및 수산 제품에 대한 잠재적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고 어업 관리 및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확인된 국가 및 단체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측은 이에 대해 미국이 "법적 근거가 없고 국제 어업 협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또한 미국 선단이 중서부태평양 쿼터 초과 어획 및 최근 ICCAT 연례회의에서 13개의 IUU 어업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9월 5일자





## 모잠비크, 해외 선망어업 입어로 인하

### 해외 선단 유치 장려 목적

모잠비크 정부는 자국 EEZ에서의 해외 국적 선망 및 연승어업 참치 입어료를 2018년의 절반 미만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였다. 신규 금액은 7월에 발효되었다. 다만, 자국 연승선단은 해외 항구에서의 양륙 허가를 위하여 100% 상승한 입어료를 지불해야 한다 (선박당 215만 MZN, 약 3만 3,514 달러).

모잠비크의 이번 결정은 모잠비크 영해에서 참치를 어획하는 중국, 대만 등 아시아 연승선단 및 EU 선망선단에게 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망선의 국내항으로의 입어료는 연간 404만 MZN(약 6만 3,036 달러)로, 이전 금액 대비 55% 하락하였다. 해외 항구로의 입어료는 41% 하락한 700만

MZN(10만 9,177 달러)이다.

연승선의 경우, 국내항으로의 입어료는 77% 하락한 148만 9,000 MZN(약 2만 3,222 달러)이고, 해외 항구로의 입어료는 63% 하락한 315만 MZN(약 4만 9,161.4 달러)이다. 자국 선단에 대한 입어료는 유지되었다.

2021년 최신 IOTC 자료에 따르면 황다랑어, 황새치, 눈다랑어의 어획량은 총 7,782톤으로 추산되었으며, 외국 선단 허가는 없었다. 자국 연승선단의 수는 2척에서 8척으로 증가하였고, 2021년 390톤을 어획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8월 9일자

## 바누아투, 자국 EEZ에 선망선 대상 VDS 도입

### 2024년 발효 예정

바누아투 정부는 자국 EEZ에서 선망선, 연승선을 대상으로 선박일수제도(이하, VDS)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들은 또한 '나우루협정당사국(이하, PNA) 통합어업정보관리시스템(이하, iFIMS)'을 도입하여 EEZ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새 라이선스 구조는 2024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바누아투는 5년 전에 PNA VDS를 신청하였으나 승인된 것은 최근이다. 바누아투 수산부 대변

인에 따르면 해당 계획은 EEZ 내 해양 참치 자원의 할당된 가치로부터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다. 바누아투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이 프로그램은 어업 관리, 수익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바누아투 EEZ 내에서의 어선 운항 제한을 설정할 예정이다. 3년 전 PNA가 구입한 iFIMS는 WCPO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VDS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이다.

\* 출처: Atuna, 2023년 8월 10일자



## 2분기 타이유니온 순이익 급감, 참치 통조림 판매 개선

다양성, 웰빙에 초점을 맞춘 혁신적인 제품 지속 제공

타이 유니온 그룹의 2023년 2분기 매출은 2023년의 1분기보다 개선되었지만 2022년의 실적 대비 저조하였다. 참치 통조림 사업은 2023년 2분기에 매우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매출은 고객사의 높은 재고 수준, 물류 정상화, 전반적인 최종 시장 수요 부진으로 지난해보다 약 13% 감소한 340억 5,000만 바트(9억 7,221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23년 2분기 순이익이 10억 3,000만 바트(2,939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 가까이 급감하였다.

2분기 매출은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1분기 대비 4.3% 증가하였다. 참치 통조림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변 수산물 사업 매출은 2분기 성장세로 돌아서며

지난해보다 1.3% 증가한 171억 바트(4억 8,820만 달러)로 지난 9년 만에 분기 매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특히 EU 시장에서 판매 가격 인상과 판촉 활동 덕분이다.

타이 유니온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참치 통조림 판매는 이집트에서의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그룹의 브랜드 부문은 다양하고 건강 및 웰빙에 초점을 맞춘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을 계속 제공하였다. 타이 유니온의 가장 큰 시장은 여전히 북미(미국 및 캐나다 40%)였으며 그 외 유럽(30%), 기타(아시아, 호주, 중동, 남미, 18%)가 차지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8월 8일자

## 美 2분기 참치 통조림 수입 비용 급상승

2023년 상반기 참치 통조림 수입량 감소

미국 소매업체와 무역업자들은 주요 공급업체와의 거래가 감소하면서 2023년 상반기에 작년 대비 참치 통조림 수입량이 감소하였다. 상반기 총 수입액은 약 2억 8,472만 달러이다.

상반기 총 수입량은 6만 4,858톤으로, 2022년 동기 대비 6% 감소하였다. 상반기 수입 단가는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하였으나, 이 중 2분기 수입 단가는 1분기 수입 단가에 비하여 급등하였다. 1분기 톤당 평균 단가는 4,185 달러였으나, 2분기 수입 단가는 톤당 4,595 달러였다.

태국 가공업체의 올해 상반기 미국행 수출량은 3만 6,223톤으로 7% 감소하였으나, 올해 1분기 수출량은 2분기보다 많았다. 수출 단가는 톤당 4,435 달러로 전년 대비 2% 감소하였다.

멕시코의 상반기 미국행 수출량은 7,956톤이며, 이 중 2분기 수출량은 3,394톤으로 1분기보다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출 단가는 톤당 4,284 달러로 14% 상승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8월 23일자



## 가다랑어 어획 감소로 상반기 태국 참치 공급 감소

31만 톤 어획, 톤당 1,904달러

가다랑어 어획량의 급격한 감소로 2023년 상반기 태국 통조림에 대한 전반적인 원료 공급이 약화하였다.

2023년 상반기 방콕 가공 허브의 원자재 거래는 참치 공급 부족, 통조림 업체의 낮은 수요, 최종 구매 시장 주문 감소로 침체기를 겪었다. 태국 세관에 따르면 주요 참치 어획량은 31만 3,012톤으로 14% 감소했지만, 참치 가격은 톤당 1,904달러로 1% 증가에 그쳤다.

가다랑어를 주로 어획하는 대만 선망 선단은 지난해보다 15% 감소한 5만 4,041톤을 어획하였다. 전체 어획량은 톤당 2,119달러에 가격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날개다랑어를 포함했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다.

올해 마이크로네시아 국적 선망어선의 어획량은 1월 이후, 특히 4월부터 6월까지 이 섬나라 해역에서 어획된 참치 어획량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급감

하였다. 1분기에는 1만 4,544톤을 선적하였으며 2분기에는 이보다 더 낮은 1만 3,019톤을 선적하였다. 이들 선박은 또한 WCPO의 다른 PNA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조업일수도 줄었다.

한국 선망 선단은 태국 통조림 업체에 대한 원료 공급량을 3만 265톤으로 늘렸으며, 평균 가격은 약 100 달러 상승하였다. 한국 선단은 주로 WCPO 동부 지역에서 조업하지만 2022년에는 태평양 서부에서 조업이 이루어졌다. 이는 2021년 상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톤수가 크게 감소한 것을 설명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키리바시와 공해를 향해 동쪽으로 CPUE 분포가 바뀌었고 이 지역의 어획량이 증가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8월 9일자

## 피지 학자, 남태평양참치조약에 의문 제기

“美 이익 대비 태도국 이익 부족” 주장

피지 출신 학자인 Jope Tarai 호주국립대 연구원이 남태평양참치조약(이하, SPTT)이 미국의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주장하였다.

Tarai 연구원은 SPTT에서 약속한 미국과 태평양 도서국 간의 연대 및 10년간 지원하기로 한 6억 달러의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또한 연간 6,000만 달러를 15개국에 분배하

게 되면 이는 매우 적은 액수라고 지적하였다.

Tarai 연구원은 지정학적 분쟁에서 가장 잃은 것이 많은 쪽은 미국임을 지적하며, 대등한 파트너로서 태평양 도서국에 시장 가치에 걸맞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8월 21일자



## 中, AI 기계학습 참치 분류법 연구

### 어종별로 80~100% 식별 정확도 기록

중국 연구진이 인공지능(AI)과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눈다랑어, 황다랑어, 날개다랑어 등 참치 3종의 형태학적 특성을 식별하는 연구를 실행하였다.

연구진은 수년에 걸쳐 어종 및 아종을 구별하기 위하여 크기와 형태를 분석하여 왔다. 이들은 어류생물학과 결합하여 고차원적이고 심층적인 정보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AI 기계학습 기술이 더 효율적이고 자동화된 식별 결과를 낼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연구자들은 물고기의 크기,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2가지 기술을 사용했다. 하나는 윤곽을 포괄적으로 정량화하는 '타원형 푸리에 변환(EFT)' 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컴퓨터가 인간의 뇌에서 영감을 받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가르치는 컨볼루션(convolutional)

신경망이다.

조사 결과, EFT 기술은 K-최근접 이웃(K-nearest neighbor, 어떤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 주변의 데이터를 살펴본 뒤 더 많은 데이터가 포함된 범주로 분류하는 방식) 방식에서 식별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별 결과는 눈다랑어 90%, 황다랑어 90%, 날개다랑어 85%이다. 반면, 심층 특성 정보의 경우에는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두 분류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결정 경계선을 찾는 분류 방식) 기법이 눈다랑어 식별률 80%, 황다랑어 90%, 날개다랑어 100%로 가장 높았다.

\* 출처: Atuna, 2023년 8월 16일자

## IOTC, 中 연승선 IUU 어업 의심 행위 조사

### IUU, 상어 지느러미 채집, 인권 침해 등 보고

중국 어업회사인 Qingdao YKS Ocean Fishery 소속 중국 국적 연승선 3척에 심각한 혐의가 제기되고 있다. 8월 16일 IOTC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정의재단(이하, EJF)은 해당 선박 3척에서 IUU 어업, 상어 지느러미 채집, 선상 인권 침해 등의 혐의를 보고하였으며, 해당 선박의 어획물이 주요 시장에 진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IOTC는 중국을 포함한 전 회원국에 이를 전달하여 가능한 조치를 촉구하였다.

EJF에 따르면 해당 혐의가 제기된 선박은 'LU QING YUAN YU 115', 'LU QING YUAN YU 116', 'LU QING YUAN YU 117' 3척으로, 해당 선박에 2020~2022년 승선했던 선원 12인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여 증언, 사진, 영상 증거 등을 확보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8월 21일자



## 中 정부, Kaichuang社에 보조금 579만 달러 지원 선단 현대화에 사용될 예정

중국 선사 Shanghai Kaichuang社는 8월 31일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고 발표하였다.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보조금액은 미화 기준 약 579만 달러이다.

Shanghai Kaichuang社는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스페인 비고에 위치한 통조림 회사 Hijos de Carlos Albo社의 소유주이다. Shanghai Kaichuang社는 선망선 12척, 대형 트롤선 2척, 리퍼 운반선 2척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치가 주요 목표 어종이지만 고등어, 알래스카 명태, 연어 등 다른 수산물도 어획하고 있다.

이사회는 이번에 받은 보조금이 2023년 회사의 연간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연간 감사가 이뤄진 뒤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사이트 파로 데 비고(Faro de Vigo)에 따르면, 보조금은 선박의 장비를 현대화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수년에 걸쳐, 중국은 자국 원양 선단에 유류비 등 보조금을 지급하여 선박이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운영되도록 허용하고, 심지어 IUU 어업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 출처: Atuna, 2023년 9월 6일자

## 中 선사, 선망선 2척 신조 계약 체결

### 1,800톤 규모

중국이 선망선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Penglai Zhongbai Jinglu Shipbuilding 조선소와 중국 참치 선사 Zhoushan Yinghai Ocean Fishery社는 1,800톤 규모 선망선 2척 신조 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조선이 언제 조업에 착수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선박 명단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74척의 참치 선망선

을 보유 중이다.

Jinglu 조선소는 대만과 중국 선사들을 위하여 약 20척의 대형 선망선을 설계, 건조하였다. 키리바시 정부는 지난 5월 중국 저우산을 방문한 후 Yinghai社와 어업 협력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 출처: Atuna, 2023년 9월 11일자



## 기후 변화, 대서양멕시코만 참치에 부정적 영향 우려 금세기 말까지 수온 1~6도 상승 예상

비영리 연구기관 WHOI, 샌디에이고주립대,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이하, NOAA)의 연구진은 기후변화가 북서대서양(이하, NWA) 및 멕시코만(이하, GOM)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기후 변화와 바다의 급격한 온난화가 2100년까지 참치 및 타 포식자 종을 위협하면서 연안국 경제, 공동체, 상업 어업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구진은 5개 상업 참치 어종(날개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참다랑어, 가 받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진이 조사한 수역은 참다랑어와 북부 날개다랑어의 서

식지이며, 황다랑어는 GOM에서만 어획된다. NWA와 GOM은 가장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는 수역 중 하나로, 금세기 말까지 평균 수면 온도가 섭씨 1~6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또한 참치를 비롯해, 상어 3종과 새치 4종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연구 결과는 연구 대상이 된 거의 모든 고이동성 어종에 대한 광범위하고 현저한 서식지 감소를 시사하고 있다. 연구는 기후 변화가 근본적으로 종의 서식 및 생존 방식에 대한 현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8월 21일자

## FDA, 통조림 배수 중량 방법 제안

### 압착 케이크 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짐을 확인

미국 3대기업과 수산 단체의 수년간의 반발 끝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참치 통조림의 식별 및 용기 충전 기준을 개정하는 규칙안을 연방 관보에 발표하였다. 이 규정이 확정되면 참치 통조림 업체는 논란이 많은 압착 케이크 방식(pressed cake procedure)을 대신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배수 중량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미국 3대 기업은 수년간 압착 케이크 방식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13년, 스타키스트는 5온스(142g) 참치 통조림의 내용물이 과소 충전되어 있으며 평균적으로 연방 최소 중량에 17% 미달한다고 주

장한 소비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국립수산물연구소(NFI)는 부정확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압착 케이크 방식을 폐지해 달라고 FDA에 청원하였다.

2018년에는 전미소비자연맹(NCL)도 이 방식이 미국에서만 사용되는 구식 방법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배수 절차로 변경하면 생산이 간소화되는 동시에 제품의 무게를 이해하려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NCL은 유엔 식량농업 기구가 정한 국제 표준과도 일치할 것이라 덧붙였다.

\* 출처: Atuna, 2023년 8월 25일자



## 생분해성 젤리-FAD, WCPO에서 테스트 완료

9~12개월이 지나면 분해되어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아

젤리-FAD 프로젝트에 대한 경과보고서가 현재 연례 WCPCF 과학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업계 파트너들은 비영업 dFAD 수행하는 SPC 주도의 프로젝트 110의 일환으로 총 214개의 장치를 제작 및 배치할 계획이다. 216개의 젤리-FAD는 국제수산기구의 감독하에 혼획 저감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이하, BREP)에 의해 설치될 예정이다.

이 테스트는 젤리-FAD가 참치를 모으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어떻게 표류하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음향 측심기가 장착된 위성 부표는 중요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 장치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기존 합성 dFAD에서 동시에 수집된 유사 정보와 비교될 것이다.

2023년 7월 현재, 프로젝트 110의 일환으로 180개

의 젤리-FAD가 제작되어 72개가 배치되었으며, BREP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216개가 제작되어 52개가 바다에 배치되었다.

이번 시험에서 젤리 어군탐지장치의 재료비와 제작 비용은 개당 500~550달러였지만, 재료비와 배송비만 고려하면 장치당 350~362달러에 불과하였다.

젤리-FAD를 사용한 조업은 11회, 세트 없이 추가 조업은 2회, 기존 dFAD를 사용한 조업은 4회 실시되었다. 11회의 어획량은 평균 26.8톤(2~55톤), 4회의 재래식 FAD 어획량은 32.5톤(20~45톤)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 예비적인 결과이며, EPO에서 젤리 FAD를 테스트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50세트에서 평균 44.1톤(2~125톤)의 어획량을 기록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8월 24일자

## NOAA, 혼획 감축 위해 신형 연승 장비 테스트

해양포유류 사망률 및 어구 손실량 감소

미국 어업자들은 10년 동안 사용한 결과, 범고래와 같은 혼획을 줄이기 위한 갈고리가 효과가 없고 10%만 곧게 퍼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NOAA는 하와이 연승 어부들이 설계한 새로운 어구를 공식적으로 테스트하여 다른 어구에 비해 혼획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NOAA 태평양제도 지역사무소(PIRO)는 하와이 연승 협회(이하, HLA)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연승

어구 구성을 사용한 심해 연승 실험을 실시하였다. HLA는 '파이팅 라인 장치(fighting line device)'라고 불리는 이 낚시줄이 이미 성공적으로 테스트되었으며, 어부들이 플라이백(flyback) 없이 낚시비늘을 곧게 퍼거나 리더를 절단하여 어구 손실량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 출처: Atuna, 2023년 8월 25일자



## 해양 온난화로 황다랑어 서식지 축소 우려

### 황다랑어 이동 반경 축소로 남획 위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수온 상승으로 인한 바다의 얇은 층의 산소 수치 감소로 인해 황다랑어의 서식지가 축소되고 남획에 보다 취약해질 수 있다.

지난 8월 Marine Megafauna 재단, 사우샘프턴 대학, 산프란시스코데키토대학 과학자들이 발표한 황다랑어의 이동 및 서식지에 관한 연구에서, 연구진은 갈라파고스 해양보호구역의 황다랑어 표본 8마리에 태그를 부착하고 수직, 수평 이동을 4~97일간 추적하였다.

논문에 따르면 해당 수역의 황다랑어는 자신이 머물던 곳으로 돌아오려는 성향이 강하고,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보호구역과 에콰도르 EEZ에서 이들을 더 많이 관측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황다랑어들은 거의 90%의 시간 동안 주간에는 평균 수심 24~46m의 수면 근처 산소가 풍부한 층에 머물렀고, 야간에는 수심 10~16m 층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황다랑어들은 또한 간헐

적으로 더 시원하고 산소가 풍부한 층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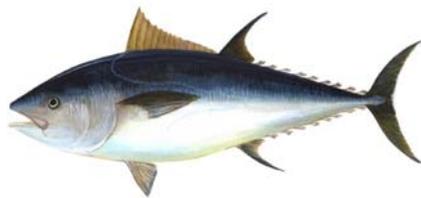
황다랑어는 신진대사가 빠른 온혈성 유영 어류로, 몸을 식히기 위해 수심 200미터의 차가운 수층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 패턴은 주로 낮에 관찰되었다.

낮은 산소 농도가 지속되면 "재산소화"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황다랑어는 수면으로 돌아와 입을 더 크게 벌려 아가미를 통해 물을 더 빠르게 흡수한다.

과학자들은 저산소 구역이 수면으로 확장되어 참치가 더 깊고 차가운 물에서 헤엄치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로 인해 황다랑어는 남획에 노출되기 더 쉽다.

이 논문은 또한 "해양 용존 산소가 2100년까지 최대 7%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주장한다. 이는 황다랑어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해양 생물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Atuna, 2023년 8월 24일자





## 오메가3 지방산, 폐 건강 유지 효과

### 美 국립보건원 연구 결과

미국 국립보건원(이하, NIH)은 ‘오메가-3 지방산이 폐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Omega-3 fatty acids appear promising for maintaining lung health)’라는 최신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논문에 따르면 연구진은 혈중 오메가-3 지방산과 폐 기능 간 연관성 조사를 위하여 2부로 구성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부에서 연구진이 1만 5,063명의 건강한 미국인(여성 55%, 평균연령 56세)을 대상으로 7~20년 간의 기간을 조사한 결과, 높은 오메가-3 혈중 농도가

폐 기능 저하 방지와 연관이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특히 참치 등에 풍부한 DHA와의 강력한 연관성이 관측되었다.

보고서 2부에서는 50만 명 이상의 유럽인의 유전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DHA를 포함한 높은 수준의 오메가-3 지방산이 높은 수준의 폐 기능과 연관이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

\* 출처: Atuna, 2023년 7월 31일자



## 日산 참치 구매 감소 조짐

### 원전수 방류 이후 수산물 판매량 영향

지난 목요일, 일본은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핵 처리 폐수를 세계 최대 참치 어장인 태평양에 방류하였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 폐수가 방사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많은 국가는 이 조치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주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였다.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의 최대 수출국으로, 가다랑어

와 가다랑어가 수출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대만, 한국, 태국, 베트남도 일본 참치 및 기타 수산물의 주요 구매국이다. 일본의 유명한 도요스 시장에서 참다랑어 가격이 하루 만에 24%나 급락하는 등 동아시아 여러 국가의 수산물 판매량이 급감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8월 29일자



## 中 냉동 살오징어류 가격 전월 대비 하락세

### 중국, EU 시장행 이동 둔화...전년 대비 여전히 고가

일본 상사 소식통에 따르면, 7월 중하순 시점 중국 국내 시장의 아메리카 대왕오징어 원어 가격은 마리당 300~500g이 톤당 1만 3,700~1만 3,800 위안, 500g~1kg이 1만 1,800~1만 2,500 위안을 기록하였다. EU로의 이동이 둔화하여 전월 대비 다소 하락하였으나,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각각 60%, 40% 상승한 고가이다.

중국은 올해 어선 수리 등으로 출어 척수를 줄이고 있으며, 페루의 남미 대왕오징어 어획 상황도 좋지

않다고 상사 소식통은 전하였다.

아르헨티나에서 어획하는 아르헨티나 일렉스오징어는 “5~7월 어획량이 증가하면서 가격도 다소 하락하였다.”라고 소식통은 전하였다.

일본 재무성 무역 통계에 의하면 1~6월의 냉동 오징어류(일렉스, 대왕오징어류 등 포함)의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한 4만 2,006톤이다. 평균 단가는 19.8% 상승한 kg당 587 엔이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3년 8월 19일자

## 포클랜드제도 로리고 오징어 시즌 조기 마감

### 환급 불확실

포클랜드제도의 로리고 'X' 오징어 면허 시즌이 조기에 마감되었다. 어업회사들은 면허 수수료 환급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포클랜드제도 입법부의 한 의원은 환급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이번 어업 폐쇄 결정은 과학적 조사 결과 2008년 이후 겨울 이전 시즌 자원 조사 중 가장 적은 추정치(1만 9,859톤)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포클랜드제도 어업협회(이하, FIFCA)와 포클랜드제도 수산부(이하, FIFD)의 공동 보도 자료에서 FIFD는 현지 업체들과 협력하여 겨울철 로리고 'X' 면허 시즌을 위한 사전 시즌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이러한 요인들이 누적되면 2023년에는 이 부분의 수익성과 세금 납부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회원사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에는 조업 손실 기간에 대한 라이선스 수수료 환급과 관련하여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을 논의할 것이다."

그러나, 보존을 이유로 한 환급은 ITQ 어업과 관련하여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존을 이유로 폐쇄가 있었던 지난번에도 환급된 금액은 없었다.

\* 출처: PenguinNews, 2023년 8월 31일자



## Oceana, 중국의 오징어 조업 유예를 비난

### 중국 정부의 남획 장려 정부 보조금에 따른 문제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환경 비영리단체인 Oceana는 중국의 오징어 조업 금지 조치가 남획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보여주기식 조치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연례 금지 조치가 중국 선박의 실제 조업하는 수역이 아니라고 밝혔다.

2022년 중국은 남인도양수산협정의 관할권 밖 북 인도양 공해상에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오징어 조업을 자발적으로 금지하기로 하였다.

"중국의 조업 금지 조치는 펭귄이 비행을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으며, 조업이 없는 지역에서 오징어 조업을 중단하는 것은 자원을 보호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의 호감을 얻기 위해 허울 좋은 명분으로 만들어진 해결책이 아

니라 진정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Oceana 캠페인 디렉터 맥스 발렌타인은 말하였다.

Oceana는 스카이트루스 및 구글과 협력하여 Oceana가 설립한 독립 비영리단체인 글로벌 피싱 위치(Global Fishing Watch)에서 얻은 자동 식별 시스템 데이터를 사용하여 중국 국적의 오징어 조업 선박의 활동을 분석하였다.

Oceana에 따르면 중국은 2023년 상반기에 오징어 조업에 33만 시간 이상을 소비하였다. 과잉 생산과 남획을 장려하는 유해한 정부 보조금이 중국의 원양어업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Oceana는 말하였다.

\* 출처: SeafoodSource, 2023년 9월 12일자





## 러, 중국으로 수산물 수출 증가에 집중

### 지난해 대비 88% 성장

중국이 러시아 수산물의 주요 시장이자 여전히 성장하는 시장이다. 2023년 상반기 러시아산 생선의 중국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한 54만 톤을 넘어섰다. 명태 제품은 수산물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 대한 심층 가공 제품공급으로 상당한 성장이 입증되었다. 2023년 상반기에는 약 7천 톤의 필렛, 민스, 연육이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공급되었으며, 이는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거의 15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 제품의 거의 전량

(99.98%)이 명태에서 생산되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으로의 공급 확대 계획 발표가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수 방출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중국의 조치에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다. 다른 일본 수산물 수입업체들도 러시아 공급업체와 새로운 파트너십 계약을 모색하고 있다.

\* 출처: Fishnews, 2023년 8월 28일자

## 러 명태 연육, 中, 韓 시장에서 美 대체

### 저렴한 러시아 제품으로 구매 전환

러시아가 중국과 한국의 명태 연육 시장에서 미국을 대체하고 있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데이터를 인용하여 "Rybkhoz"가 보도하였다. 이 원료는 주로 크랩 스틱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다. 올해 명태 연육에 대한 가격과 수요는 "부진"하였다.

2023년 1분기 유럽 및 아시아 시장에서 연육 판매가 거의 10% 감소하였으며 생산자의 이윤은 더 작아졌다. 그 이유는 소비자들 점점 더 필수적이지 않은 제품을 줄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구매자는 러시아 회사가 미국 회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하여 더 저렴한 러시아 제품으로 구매를 전환하였다. 예를 들어 작년에 러시아는 역사상 처음으로 명태 필렛 생산에서 미국을 추월하였다. 미국은 천천히 명태 시장의 주도권을 잃고 있다.

\* 출처: Fishery.ru, 2023년 8월 29일자



## 러, 中 어류 수출 지난해 대비 15배 증가

지난해 대비 2023년 7월까지 2.5배 수출

러시아 명태 연육은 다른 나라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여 아시아 시장에서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요 증가로 인해 생산량도 2023년 말까지 5~6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연육 수출은 러시아 수산물 수출순위에서 9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 첫 7개월 동안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배 더 많이 수출되었다.

해외 시장의 연육 수요와 가격은 2022년에 강세를 보였지만 거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필수품이 아닌 제품을 더 많이 절약해야 했기 때문에 2023년에 10% 하락하였다. 동시에 더 저렴한

대안을 찾기 위해 일부 소비자는 미국산보다 저렴한 러시아산 연육을 구입하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러시아에서는 고차 가공 수산물의 생산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2년 러시아는 처음으로 명태 필렛 생산량 측면에서 미국을 추월했으며 이미 2023년 상반기 동안 전년도 생산 수준을 4배 초과하였다. 2023년 말 러시아 명태 연육 생산량은 5~6만 톤에 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출이 생산과 함께 증가할 것이라고 믿는다.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 동안 중국으로의 연육, 민스, 필렛 수출은 작년 대비 15배 증가하였다.

\* 출처: sfera.fm, 2023년 9월 1일자

## 러, 中 생선 수출 팬데믹 이전 수준 초과

명태 평균 가격 1/4가량 감소

2023년 상반기 동안 러시아의 대중국 생선 수출은 처음으로 2019년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그러나 금액 측면에서는 증가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전러시아어업생산자협회(VARPE)는 2023년 상반기 동안 러시아의 대중국 어류 수출을 분석한 결과 현재 수출량이 2019 동기간 대비 4.3%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2023년 상반기 동안 중국으로의 생선 수출은 2022년 수준에 비해

1/4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액 측면에서 볼 때 수출이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물량은 26.5% 증가했지만, 금액 기준으로 25.7% 증가에 그쳤다. 중국에 공급되는 명태 수산물의 평균 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가량 감소하였다.

\* 출처: Fishretail, 2023년 8월 23일자



## 日 8월 콩치 어획, 전년 동월 대비 증가

### 전년 대비 61% 증가했으나 2021년 대비 여전히 부족

일본 콩치어업의 주력인 100톤 이상 대형 봉수망 어선이 출어한 지 약 보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까지의 어획량은 작년보다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부족한 편이며 어체 크기도 소형 위주이기 때문에 어업 본격화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어업정보서비스센터(이하, JAFIC)의 집계에 따르면, 8월 콩치 선어의 어획량은 주요 어항인 네무로(根室), 하나사키(花咲)를 중심으로 620톤을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61% 증가한 수치이다.

JAFIC에 따르면 9월 5일 시점에서 어장은 주로 하나사키에서 동쪽으로 2일 정도 걸리는 공해와 동남동쪽으로 3일 정도 걸리는 공해, 총 2곳에 형성되어 있다. 조업의 중심은 대형선이지만, 중형선

(20~100톤)도 일부 조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다 멀리 떨어진 어장에서는 외국선도 함께 조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업선의 어획량은 일 평균 16톤으로, 어체는 70g 전후의 작은 크기가 중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어장에서는 일부 100g이 넘는 콩치도 섞여 있는 등 크기는 좋은 편이나, 어군 밀도가 낮고 어획량도 저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JAFIC는 현재까지의 어획 현황에 대하여 “작년보다 잘 잡히고 있으나, 60~80g의 0세어가 어획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하였으며, 어장 근방의 해수면 온도가 19~21도로 높은 편이라서 본격적인 어획은 해수면 온도가 하강하는 9월 하순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3년 9월 7일자

## 日, 8월 17일 콩치봉수망 대형선 첫 출항

### 11척 출항...전년 출항 대비 2척 증가

일본의 콩치 어항인 미야기현 게센누마항에서 17일 대형 콩치봉수망 어선 11척(전년 첫 출항 대비 2척 증가)이 출항하였다. 이들은 20일부터 해금되는 대형선 콩치 조업을 앞두고 전선기지가 되는 홋카이도 하나사키항으로 향하였다.

해당 선단은 도토(道東, 홋카이도 동쪽) 연안 공해 등을 어장으로 12월경까지 조업할 예정이다.

올해는 9월 중순부터 쿠릴 열도 4개 섬 주변의 러시아 주장 EEZ 내 조업도 재개될 전망이다. 게센누마시 어시장으로의 첫 양륙 시기는 미정이지만, 작년에는 8월 29일에 1척이 입항해 약 5톤을 양륙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3년 8월 19일자



## 日 도요스시장 콩치 가격, 30% 상승

어체 크기 감소, 가격 상승 요인 중 하나

일본 도쿄 도요스시장에 입하된 콩치의 중심 도매가격은 8월 31일 시점, 전년 동기 대비 20~30% 상승한 kg당 1,000~2,000 엔으로 추산된다. 중심 사이즈는 마리당 90~120g으로 전년 동기에 비하여 작은 편이라고 소식통은 전하였다.

다른 소식통은 “이 시기에는 마리당 130~140g을 출하하지만, 올해는 같은 크기의 어획물이 거의 없어, 작은 크기의 어획물을 출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전하였다.

도매상 소식통에 따르면 어획물의 중심 사이즈가 작아졌다는 점이 가격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도매상 소식통은 “기름기가 좋지 않아 구이용으로 적합하지 않고 회에 적합하다”라며 “대형소매점이 요구하는 크기인 130~140g에 미치지 못하여 대형소매점이나 중간 도매상의 수요가 약하다.”라고 전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3년 9월 1일자



## 日 콩치봉수망 중·소형선, 올해 첫 양륙

어장까지 주야 3일 소요

일본 콩치봉수망 첫 양륙이 홋카이도 앓케시항과 네무로항에 18~19일에 걸쳐 봉수망 소형선(10톤~20톤) 4척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양륙된 양은 총합 1.5톤이다. 올해는 7월 해금되는 유망 어업 어획이 없어, 첫 양륙이 1개월 늦어졌다.

봉수망 소형선의 해금일은 10일로, 올해도 어장이 먼 공해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

에, 항행 능력에 한계가 있는 대부분의 소형선은 해금 직후에 출어를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어장은 하나사키항에서 동쪽으로 1,000km 이상 떨어진 공해로, 북위 42~43도, 동경 161도 부근이며, 어장까지 편도로 주야 3일이 소요되었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3년 8월 21일자



## Intrafish, 국제 수산물 판매 동향 및 전망 분석

### 수산물 판매 동향 및 전망, 앞으로 필요한 전략 등 분석

수산업 미디어 Intrafish가 최근 몇 년간의 국제 수산물 판매 동향 및 전망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솔직히 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지 않아야 한다.

수산물은 가장 건강한 동물성 단백질이다. 모든 입맛에 맞는 다양한 맛을 제공한다. 요리하기 쉽고 요리책에서 꺼낼 수 있는 거의 모든 레시피와 함께 작동한다.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가격도 저렴하다.

지난 몇 년 동안 소비자 수산물 구매 습관에 대해 배운 것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라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2년 초까지 팬데믹 기간 동안 여행, 레스토랑 및 기타 지출한 금액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이러한 유형의 활동이 중단되거나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이 돈은 대부분 가정에서 TV, 그리고 식료품점의 식료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소매 지출로 이어졌다.

소비자들의 요리 실력이 향상되고 가정식 요리에 대한 감각이 높아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수산물을

집으로 가져와서 요리하려는 의지가 강해졌다. 가격은 요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2022년 중반부터 상황이 바뀌었다. 인플레이션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강타했고, 예상대로 소비자들은 특히 너무 비싸다고 생각되는 품목에 대한 지출을 중단하였다.

수산물은 희생양이 되었다. 물류 문제로 인해 공급망의 재고가 급증했고, 결국 소매업체들은 너무 비싼 제품에 대한 부담으로 주간 수산물 프로모션을 축소하게 되었다.

프로모션, 세일도 없다. 가격이 중요하다. 우리가 좋든 싫든, 소비자들은 수산물이 비싼 식사 옵션이라는 믿음에 갇혀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이제 초인플레이션의 시기를 벗어나고 있고 공급망이 스스로를 바로잡고 있으며, 이를 살펴보면 소매 수산물 프로모션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소매점 프로모션이 계속되고 더 강화된다고 가정할 때 하반기에는 소매점에서의 수산물 판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할 것이다.”

\* 출처: IntraFish, 2023년 8월 3일자



## G20 정상, 다국적기업 대상 글로벌 최저 관세에 합의 국제 참치 대기업에 영향 미칠 수 있어

인도에서 개최된 19개국과 EU의 G20 정상회담은 다국적기업 대상 글로벌 최저관세 15% 도입에 합의하며 폐막되었다. 해당 합의는 특정 조세 회피처를 사용하는 세계 최대급 참치 기업 일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G20 정상회담에서는 세계적으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현대적인 국제 조세 시스템인 일명 '2개 필라(Pillar, 시스템, 조직, 이론 등의 기초) 국제 조세 패키지'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G20의 자문기구인 OECD는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실행 프레임워크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에 138개 OECD/G20 회원국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2개의 필라로 구성된 국제 조세 패키지는 세계 최대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가 및 관할권 간의 공정한 이익 분배와 과세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각국은 다국적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곳에서 최소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글로벌 조세 기준을 개정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 패키지는 글로벌 대기업의 세금 계산 및 정산을 위한 두 가지 필라로 구성된다. 필라 1에는 A와 B의 두 가지 어마운트(Amount)가 포함된다.

어마운트 B의 경우, 연간 7억 5,000 유로(8억 4,474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대형 참치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5년까지 글로벌 다국적 기업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관할권에서 15%의 유효 최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G20 회원국 중 절반과 유럽연합은 이미 이 글로벌 최저세를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2025년까지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90%가 이 조치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마운트 A는 거대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다자간 협약이다. 대상 기업은 매출액이 200억 유로(214억 6,000만 달러)를 초과하고 수익성이 10% 이상인 다국적기업이며, 과세권의 범위는 매출액의 1/10을 초과하는 이익의 25%에 적용된다. 7년 후에는 매출 기준이 100억 유로(107억 3천만 달러)로 낮아진다.

필라 2는 조세 규칙 조약 모델 조항에 대한 합의와 개발도상국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출처: Atuna, 2023년 9월 11일자



## FAO “세계 어류 생산량, 2032년 2억톤 예상”

### OECD와 향후 10년 공동 분석 발표

UN 식량농업기구(이하, FAO)와 OECD는 최신 농업 분야 분석 보고서에서 향후 10년(2023~2032년) 간 세계의 어업·양식업 생산에 관한 중기 예측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향후 세계 수요 확대에 맞춰 전 세계 어류 생산량은 2023년 2억 200만톤에 달하고, 그 중 양식 생산량은 5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세계의 어류 생산량, 소비량 성장세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식용어류의 1인당 평균 소비량 예상치는 21.2kg으로, 2020~2022년의 20.4kg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한편, 식용어류 소비량의 증가율은 주요 소비지역인 아시아 국가 수요 둔화로 인하여 2013~2022년 대비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

히, 중국의 돼지고기 수요 회복으로 인한 수산물 수요 감소가 전망된다.

FAO와 OECD는 해당 기간 동안 어가가 수요 감소로 인하여 높은 수준인 현재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식용어류 무역은 향후 10년간 성장하겠지만 성장 폭은 과거 10년에 비하여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32년까지 아시아가 전체 식용어류 수출의 51%를 차지하지만, 중국의 식용 수산물 수입은 국내 생산 확대로 내수를 보충하려는 노력을 반영하여, 2032년까지 2020~2022년 평균 대비 2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3년 8월 19일자

## 러, 8월 중순 시점 어획량 13% 증가

### 어획량 350만톤 초과

2023년 8월 16일까지 러시아의 어획량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350만 톤을 넘어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한 화상회의에서 수산청장은 6개월 동안 국내 양식업에서 약 23만 톤이 생산되었다고 말하였다.

2023년 7월까지의 수산물 수출량은 약 120만 톤으로 2022년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하였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의 어업 단지는 안정적이고 꾸준히 작동한다. 어획량은 일부 국가의 비우호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주요 어장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수역 밖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많은 비우호적인 국가들이 협약 지역에서 조업하는 러시아 어선의 항구 입항을 금지하고 선박 수리를 중단하고 있고, 러시아 어선에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업들은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겪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파산 직전에 있다.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 국내 선박 수리 능력을 높이고 현대화하며 자체 역량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었다."라고 수산청장은 강조하였다.

\* 출처: TASS, 2023년 8월 16일자



## 호주 AF社, 메로 조업 신조선 건조

日 마루하니치로 자회사

일본 수산 기업 마루하니치로社는 지난 11일 호주 자회사인 Austral Fisheries(이하 AF)社가 파타고니아 이빨고기(메로)를 주로 어획하는 신조선을 건조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해당 선박의 이름은 Austral Odyssey로 2026년 4월 조업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톤수는 2,985톤, 전장 68.55m, 폭 14.50m, 높이 5.90m로 설계되었다. 승조원 정원은 약 30명이며, 취득 가격은 약 60억 엔으로 예정되어 있다.

AF社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와 호주 당국의 관리 하에 Heard Island 수역 및 McDonald Islands 수역(이하, HIMI 수역)에서 주로 메로를 어획한다. 이들은 호주가 보유한 HIMI 수역 메로 어획 쿼터의 약 70%를 보유 중이다.

AF社는 메로를 중심으로 조업하여 미국이나 중국을 주요 시장으로 하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장기적 사업

안정화를 위하여 현재의 2척에 추가로 신조에 들어갔다.

신조선의 특징은 디젤 엔진과 배터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도입하여 조업 피크 시의 동력 부하를 경감하는 것이다. 메인 엔진에는 2단 기어 변속 기능도 갖추어져 있다. 이를 통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및 연비 향상이 예상된다.

또한 조업 시 바닷새 혼획 방지를 위하여 선박 밑바닥에 원형의 구멍을 낸 ‘문 폴’이라는 구조를 도입하였다. 선내 가공 공간을 증설하여 동결, 보관 능력을 향상시켜 고부가가치 제품의 공급량을 확대시키는 한편, 입항 후 즉시 수출을 가능토록 하여 수출 공정 및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현행선보다 대형화되어 어창 및 유류탱크 용량이 증가한 덕에 항해수의 감소가 가능해졌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3년 9월 13일자





## 러 대통령, 생선 소비 촉진 개발 지시 러 농업부장관 소비 촉진 방안 검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3년 8월 16일 러시아 정부 구성원들과의 회의에서 최근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러시아 국민들의 생선 및 수산물 소비 문제를 제기하였다.

러시아의 지난해 수산물 소비량은 1인당 22kg이나 보건부의 권고 사항에 따르면 28kg이어야 한다. 이에 극동지역에서 수산물 운송의 어려움이 제기되었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수산청장은 설명하지 못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생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개발하라고 지시하였고, 러 농업부장관은 수산물의 국내 소비를 촉진하는 조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에 대해 수산청과 전러시아어업연합, 식당협회 등을 참여시켜 생선 소비를 늘리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할 계획이다.

\* 출처: TASS, 2023년 8월 17일자

## 러 농업부, 투자 쿼터 2단계로 60척 건조 계획 발표 1단계 105척 중 18척 인도

해양 생물 자원 어획을 위한 투자 쿼터 분배 메커니즘의 두 번째 단계로 60척의 선박 건조를 계획하고 있다고 농업부 제1차관은 발표하였다.

지난해 어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단계 투자 할당량이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60척의 선박과 다양한 가공 및 물류 및 저장 공간을 더 건설하여야 한다.

투자 쿼터 제도는 2017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였

으며, 첫 번째 단계에서는 105척의 선박과 27개의 어류 가공 공장을 건설해야 하였다.

현재 25개의 공장이 이미 가동 중이며 러시아 전역에 필요한 수산물을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차관은 현재 105척 중 18척이 인도되었으며 나머지 트롤 어선과 계잡이 어선은 다양한 건설 단계에 있다.

\* 출처: TASS, 2023년 8월 14일자



## 日 산업부 장관, 자국 어업 대상 추가 지원 암시 中 일본산 수입 중단 피해 대비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일본 수산업계에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NHK가 보도하였다.

산업성 장관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관계 장관들에게 다음 주 초까지 수산업에 대한 긴급 구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다음 날인 금요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였다.

지난주 중국은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를 처리하고 희석한 물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한 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였다.

장관은 이미 총 800억 엔(약 5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두 개의 기금이 처리수 배출로 인한 풍평 피해 등에 대처하기 위해 할당되었다고 말하였다.

장관은 정부가 피해 기업에 보조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기금의 유연한 사용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 출처: Dalekayaokraina, 2023년 9월 4일자

## 日, 금수조치로 인한 수출 감소도 피해배상 포함 자국 수산업계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배상 일환

일본 도쿄전력홀딩스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ALPS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에 대하여, 작년 12월 발표된 배상 기초를 근거로 하여, 어업자, 수산가공업자, 수산도매업자에게 배상을 실시한다. 타국 정부의 금수 조치로 인한 수출 피해도 대상이 된다.

배상 대상은 오염수 해양 방류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한, 방류로 인한 풍평 피해(소문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업자이다. 거래처가 입은 풍평 피해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또한 대상이 된다.

지불 대상의 손해는 ① '일실이익(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얻었을 것으로 간주되는 이익)'으로, 풍평 피해로 발생한 수산물의 가격 하락이나 사업의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손해, 거래처가 풍평 피해를

입은 것에 의해 발생한 매출 감소 등의 손해가 있으며, ② '추가적 비용'으로, 풍평 피해에 의해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된 비용이다.

타국 정부의 금수조치에 의한 손해는, 조치의 내용이나 국내외의 거래 상황 등을 확인하여 피해의 발생 상황을 확인한다. 수출에 관련된 피해가 확인될 경우, 사업자별로 손해액을 산정해 배상한다.

손해 예는, ① 해당 수출국 이외에서 판매할 수 없어서 발생한 손해 ② 해당 수출국 이외에서 판매한 결과, 가격 하락 등으로 발생한 손해 ③ 풍평 피해로 인해 부담이 불가피해진 추가 비용 등이 대상이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3년 9월 6일자



## 러, 국내 시장 생선소비 변화 수출국의 내수 시장에 맞춰 수출 공급 필요

낡고 값비싼 물류는 올해 업계에 심각한 문제로 변해 저렴한 생선 제품공급을 막고 있다고 전러시아어업협회장은 말하였다.

8월 31일 타스 통신이 주최한 국내외 수산물 전망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전러시아어업협회장은 최근 몇 년간 국내 수산물 시장에 일어난 심각한 변화에 주목하였다. 그에 따르면 팬데믹과 제재는 기존의 수산물 공급 시스템을 해체하는 과정을 가속하였다고 한다.

이 시스템을 특징짓는 모순은 국내 수요와 생선 가격 및 가계 소득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 4개 시장(중국, EU, 미국 및 일본)에 대한 수출 의존성, 소련 시대의 생산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낙후된 물류를

연급하였다.

낮은 생선 가격으로 국내 수요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비용보다는 수산물의 품질과 신선도에 초점을 맞춘 구매자의 점유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장은 수출 개발 전망과 관련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세 가지 지역을 꼽았다. "라틴 아메리카-명태 필렛, 대구 제품, 아프리카- 청어, 인도-명태 필렛의 주요한 시장이 될 수 있는 국가이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 어업 생산자들은 이제 이들 국가의 내수 시장 구조에 맞춰 수출 공급을 조정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 출처: Fishnews, 2023년 9월 1일자

## 러 수산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우려 없어”

### 쿠릴 및 캄차카, 추코트카 조업 동향

후쿠시마-1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냉각에 사용되는 물의 방류는 우려를 일으키지 않으며 러시아 선박이 방류 지역에서 조업하지 않는다고 러수산청은 말하였다.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냉각에 사용되는 물의 방류는 아무런 우려를 일으키지 않는다. 현재 러시아 선박은 원전수 방류가 수행되는 수역에서 어업이 이뤄지지 않는다."

앞서 러연바수산청장은 전 러시아 수산해양학연구소(VNIRO)에 후쿠시마 발전소에서 배출된 공업용수 배출 수역의 생물 자원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포괄적인 모니터링 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인간복지 및 소비자보호청은 일본에서 생산되고 태평양 지역에서 어획된 모든 수산물을 검사하고 있다.

\* 출처: RIA Novosti, 2023년 8월 24일자



## 러, 정어리, 고등어, 대구: 수산업 소식

### 쿠릴 및 캄차카, 추코트카 조업 동향

전 러시아 수산 해양학 연구소의 태평양 지부에 따르면 원양 트롤과 선망 어구를 장착한 29척의 중대형 선박이 정어리와 고등어를 어획하고 있다. 어업은 남 쿠릴, 북쿠릴 지역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정어리 어획량은 많다. 선박당 일일 평균 어획량은 161톤이다. 일부 선박의 경우 735톤에 달하였다. 주간 어획량은 17,258톤, 올해 누계 12만 7,891톤이다.

고등어 어획량은 여전히 훨씬 적다. 선박당 일일 어획량은 평균 3.8톤이다. 한 주 동안 164톤을 잡았고 전체 조업 기간 동안 8,885톤을 어획하였다.

대구 어업은 서 베링해 수역에서 지속된다. 지난주에는 7척의 저(인)망 어선, 최대 8척의 트롤 어선,

최대 19척의 저연승 어선이 조업하였다. 오늘 현재 이 수역의 대구 어획량은 2만 7,997톤에 달한다. 동시에 혼획으로 흰 넙치를 어획하였으며, 혼획량은 512톤에 달한다.

추코트카 반도 남서부 및 남동부 수역에서 3척의 대구 저연승이 조업하였으며, 262톤을 어획하였다.

러연방 수산청 북동부 지부에 따르면 9월 3일까지 55만 1,838톤의 명태, 8만 1,263톤의 청어, 4만 2,506톤의 가자미, 4만 565톤의 대구, 3만 3,204톤의 갈고리흰오징어, 1만 6,212톤의 게가 관할 수역에서 어획되었다.

\* 출처: Rybak Kamchatki, 2023년 9월 5일자

## 日,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 중국에 불만 제기

### “과학적 근거와 국제 기준에 부합” 주장

일본 외무성 차관은 인도 자이푸르에서 열린 G20 무역 및 투자 장관 회의에서 항의를 제기했다.

일본 차관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처리되고 희석된 물을 바다에 버리기로 한 결정은 많은 국가의 이해와 지지를 받았으며 이번 방류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에 일련의 브리핑을 한 후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즉각 해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목요일 기자 회견에서 중국은 방류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강력히 비난한다"라고 말하였다.

\* 출처: Dalekaya ukraina, 2023년 8월 25일자



# 바닷가에서

오 세 영

사는 길이 높고 가파르거든  
바닷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보아라

아래로 아래로 흐르는 물이  
하나 되어 가득히 차오르는 수평선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가 얻는 평안이  
거기 있다

사는 길이 어둡고 막막하거든  
바닷가  
아득히 지는 일몰을 보아라

어둠 속에서 어둠 속으로 고이는 빛이  
마침내 밝히는 여명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는 자가 얻는 충족이  
거기 있다

사는 길이 슬프고 외롭거든  
바닷가  
가물가물 멀리 떠 있는 섬을 보아라  
홀로 견디는 것은 순결한 것  
멀리 있는 것은 아름다운 것  
스스로 자신을 감내하는 자의 의지가  
거기 있다





## 8월 오징어 국내 동향

전월 대비 생산량 5% 감소, 소비자가격은 보합세

□ **생산동향**(8월 오징어 생산량, 9,305톤으로 전월 대비 5% 감소)

8월 오징어 생산량은 9,305톤으로 전월 대비 5.4% 감소했으며, 작년 및 평년 동월에 비해서도 각각 32.4%, 21.9%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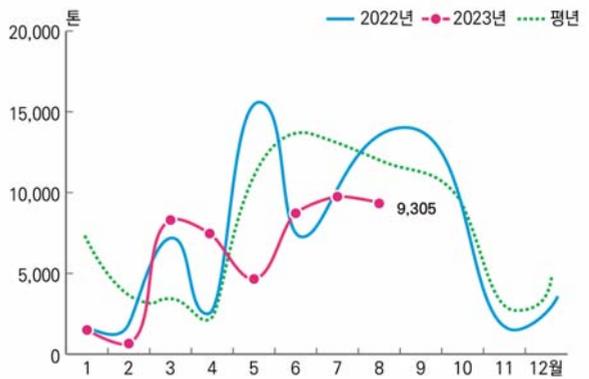
연근해산 생산량은 6,947톤으로 전월 대비 74.2% 증가했으나 작년 및 평년 동월보다는 각각 31.7%, 15.7% 적었다.

서해에 형성된 오징어 어장은 여름철을 맞아 순조로운 어황을 나타냈으나, 동해는 부진하였다.

권역별 위판량은 남해안지역 4,099톤, 서해안지역 2,417톤, 동해안지역 416톤 등 남해 및 서해안 비중이 높았음. 세부적으로는 서산수협(1,339톤)의 위판량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여수수협(1,215톤), 부산공동어시장(1,107톤) 등의 순이었다.

원양산 반입량은 2,358톤으로 전월 대비 59.7% 감소했으며 작년 및 평년 동월에 비해 각각 34.4%, 59.7% 적었다.

한편, 8월까지의 원양산 오징어 누적 생산량은 3만 1,376톤으로 작년 및 평년 동기간 대비 각각 29.2%, 17.2%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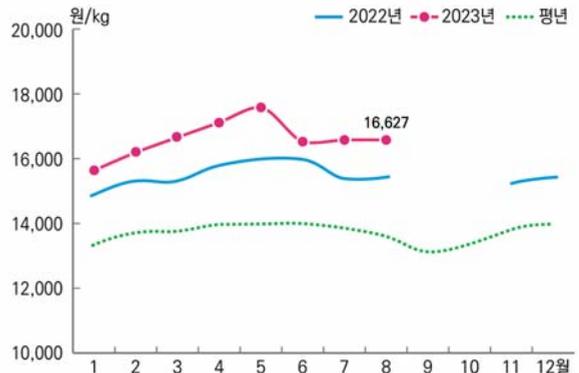


□ **가격동향**(8월 냉동오징어 소비자가격, 1만 6,627원으로 보합세)

8월 오징어(신선냉장) 산지가격은 어획물이 커지고 품질이 좋아 전월 대비 33.1% 상승한 kg당 8,710원이었다.

작년 및 평년 동월에 비해서도 각각 52.8%, 24.0% 높았는데 이는 동해안의 어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작년 및 평년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오징어(신선냉장) 소비자가격은 작년 및 평년 대비 높은 kg당 14,563원이었다.





냉동품 소비자가격도 작년 및 평년 대비 높은 kg당 16,638원이었으며, 전월과는 비슷하였다.

□ 수출입동향(7월 오징어 수출량 전월대비 늘고 수입량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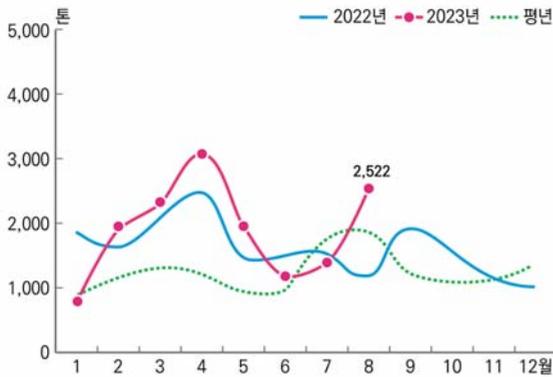
8월 오징어 수출량은 2,522톤으로 전월 대비 89.9% 증가했으나 작년 및 평년 동월보다도 많았다.

국가별로는 중국(1,670톤)과 미국(401톤)으로의 수출량이 대부분이었으며, 중국으로는 냉동, 미국으로는 냉동 및 기타 제품의 수출 비중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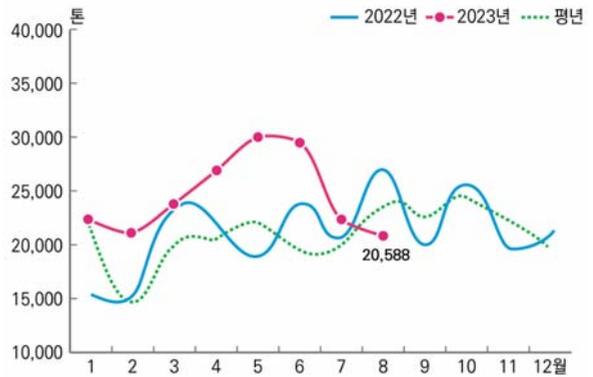
8월 오징어 수입량은 전월 대비 8.2% 감소한 2만 588톤으로 작년 및 평년 동월보다도 적었다.

국가별로는 페루산이 8,790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중국산 6,895톤, 칠레산 3,529톤 등의 순이었다. 페루산은 주로 기타, 중국산은 냉동 및 기타, 칠레산은 냉동제품 비중이 높았다.

〈 오징어 수출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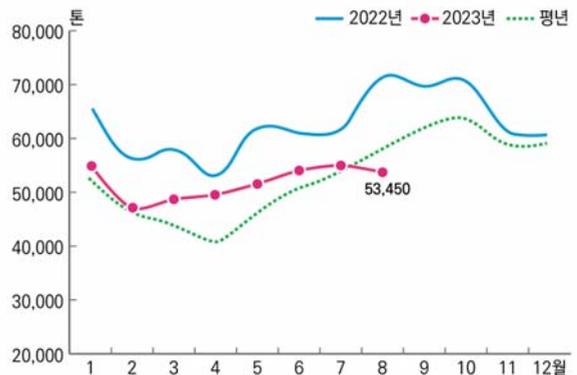
〈 오징어 수입량 추이 〉



□ 재고동향(8월 오징어 재고량, 전월 대비 소폭 줄어든 5만 3,450톤)

8월 말 오징어 재고량은 5만 3,450톤으로 전월 대비 2.7% 감소하였다. 이는 원양산 반입 및 수입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9월 연근해 어황은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며 원양산 반입량은 감소세로, 재고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KMI 수산관측 9월호



## 8월 명태 국내 동향

### 원양명태 반입량 증가, 소비자가격은 소폭 하락

□ **생산동향**(8월 원양명태 반입량, 전월 대비 증가한 8,530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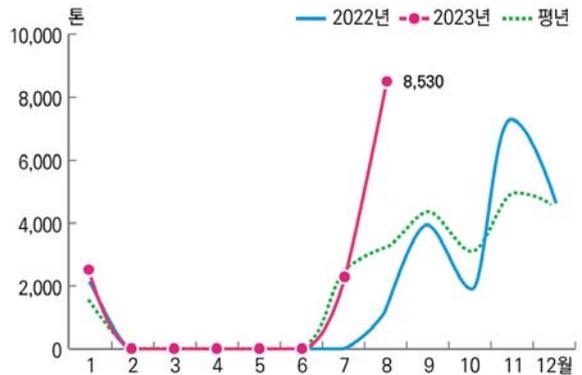
8월 원양명태 반입량은 8,530톤으로 전월보다 세 배 이상 증가하였다.

첫 반입이 8월에 시작되었던 작년에 비해 6배 많았으며, 평년보다도 두 배 이상 많았다.

이는 서베링해 어황이 좋아 A시즌에 부진했던 주 소비 크기 명태 생산과 반입이 원활했기 때문이다.

2023년 누적 반입량은 1만 3,322톤으로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18.4%, 81.8% 많았다.

한편, 8월 31일까지 어획된 원양 명태는 1만 5,403톤으로 작년(6,382톤)보다 두 배 이상 많았으며, 쿼터 소진율은 54.0%였다.



□ **가격동향**(8월 명태(냉동)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kg당 5,687원)

8월 명태(냉동) 도매가격은 kg당 2,480원으로 원양명태 반입 및 러시아산 냉동명태 수입이 원활하여 전월 대비 1.7% 하락했으며 작년 동월에 비해서도 5.6% 낮았다.

명태(냉동) 소비자가격은 kg당 5,687원으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그러나 작년 및 평년에 비해서는 각각 3.9%, 37.4% 높았다.



□ **재고동향**(8월 재고량, 전월 대비 증가)



8월 말 기준 명태 재고량은 반입 및 수입이 늘면서 전월(75,145톤) 대비 8.4% 증가한 8만 1,427톤이었다.

그러나 對 중국 재수출 물량이 포함되어있던 작년 및 평년보다는 각각 34.7%, 20.7% 적었다.

9월에도 원양명태의 반입 및 수입이 원활할 것으로 보여 재고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출입동향(8월 명태 수입량, 전월 대비 45% 증가한 3만 7,015톤)

8월 명태 수출량은 전월(2,379톤)보다 4배 이상 증가한 1만 1,407톤이었음. 작년 대비 35.5% 적었으나 평년보다는 2.7% 많았다.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되었으며 제품형태별로는 냉동연육(9,625톤), 냉동필렛(586톤), 냉동명태(391톤)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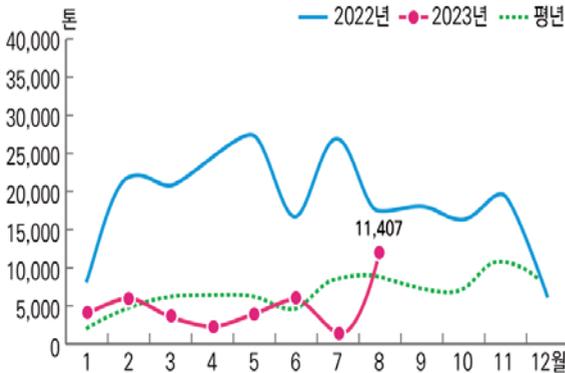
명태 수입량은 3만 7,015톤 전월(25,536톤) 대비 45.0% 증가하였다.

작년에 비해 24.0% 적었으나 평년보다 2.7%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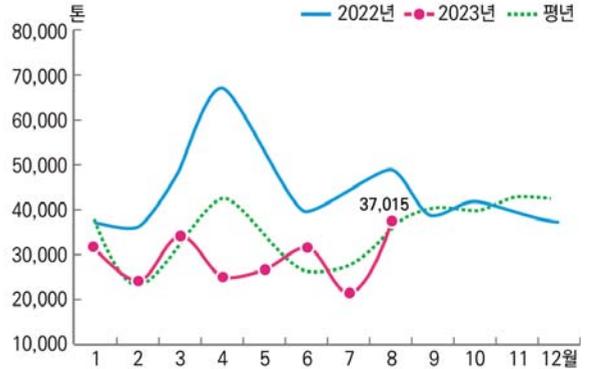
국가 및 제품형태별로 살펴보면 러시아산 냉동연육이 1만 1,737톤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러시아산 냉동필렛(8,661톤)과 냉동명태(7,264톤), 미국산 냉동연육(5,577톤) 등의 순이었다.

8월까지 누적 수입량은 23만 4,887톤으로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7.3%, 9.3% 적었다.

< 명태 수출량 추이 >



< 명태 수입량 추이 >



\* 출처: KMI 수산관측 9월호



## 해수부, 북태평양 공해까지 방사능 검사 실시 세계보건기구(WHO) 먹는 물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수치 변화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조사관찰하기 위해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에서도 해양 방사능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원전 오염수의 예상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후쿠시마 제1원전을 기준으로 약 500km~1,600km 반경 내의 2개 해역, 8개 정점에서 실시한다. 분석 대상은 인공 방사능 대표 핵종인 '세슘-134', '세슘-137'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걸러지지 않는 핵종인 '삼중수소'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부터 매달 1회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상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앞으로도 기상 여건으로 조사가 어려운 동절기(11월~3월)를 제외하고는 매달 조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8월 조사는 지난 8월 19일

출항하여 채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더 촘촘한 해양 방사능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 해역에 대한 조사 정점을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한 데 이어 일본 후쿠시마 인근 공해상에서도 조사를 실시한다.”라며, “우리 정부 자체적으로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감시하여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모든 핵종의 분석이 완료된 6월 조사를 기준으로 세슘과 삼중수소 수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먹는 물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조사 결과는 해양환경정보포털(meis.go.kr)에서 볼 수 있다.

\* (세슘-134) 10Bq/L (세슘-137) 10Bq/L (삼중수소) 10,000Bq/L

### 회원사 소식 및 정보 원고 접수

회원사 여러분에게 보다 알차고 참신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회원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각종 원고를 접수합니다. 회원사의 경조사, 사무실 이전, 신제품 생산 등 각종 소식이나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 등을 아래 송부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관계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는 적극 원양산업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우리 원양산업지를 알차게 꾸미는 데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소: 서울 서초구 논현로 83, 6층(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한국원양산업협회 기획홍보부(우편번호: 06775)
- 팩스: 02-589-1630/1631    ○ 메일: kosfa@kosfa.org



## 2023년 원양어업 생산량 감소, 총수출액 증가 2023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결과 발표

해양수산부는 '2023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2년 기준 원양업체 종사자 수는 총 10,791명으로, 전년보다 16.2% 감소하였으나, 원양어선원은 5,749명으로 전년보다 2.8% 증가하였다.

2022년 원양어업 생산량(40만 톤), 생산액(1조 1,260억 원), 수출량(15만 톤) 모두 전년 대비 각각 8.9%, 14.1%, 4.8% 감소하였으나, 환율상승 영향으로 인해 수출액(5,122억 원)은 전년(3,979억 원) 대비 28.7% 증가하였다.

원양생산 어종 중 전년보다 생산량과 생산액이 유일하게 증가한 어종은 '가다랑어'이며, 수출량은 이빨고

기, 오징어를 제외한 대부분 어종에서 감소하였다. 반면, 수출액은 품종별로는 가다랑어, 황다랑어, 이빨고기 등이, 수출국별로는 미국, 필리핀, 태국으로의 총수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2022년 국내 원양업체 총 영업이익은 3,4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2%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은 전년수준(0.5% 감소)으로 유지되어 국내 원양업체의 수익성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반면,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는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계조사 결과는 해양수산통계시스템([www.mof.go.kr/statPortal](http://www.mof.go.kr/statPortal)), 국가통계포털([kosis.kr](http://kosis.kr)), 해양수산통계시스템([www.mof.go.kr/statPortal](http://www.mof.go.kr/statPort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부·수협·유통업체, 수산물 소비 활성화 협력 해수부, 수협 및 마트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해양수산부는 9월 13일(수) 오전 노량진수산물시장에서 수협중앙회 및 대형마트 4개사(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해양수산부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예비비 80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상시 시행, 제로페이 상품권 발행 확대 등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온·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수산물 할인행사는 정부 할인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1인당 할인 한도도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산물 할인행사에 동참하고 있는 대형마트 4개사와 생산자를 대표하는 수협중앙회는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소비 활성화를 위한 할인행사 내실화 ▲수산물 소비 동향 파악을 위한 자료 공유 등에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서별 연락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회장	윤명길	589-1600	
상무	신현애	589-1602	해외협력본부장
이사	이형균	589-1603	경영지원본부장
비서(대리)	조한솔	589-1601/1621	비서, 출납업무

구분	성명	전화번호	담당
경영지원본부	총무부	강성현 부장	총괄
		공길웅 과장	총무, 자금
		조성환 과장	서무관리, 차량운영
기획홍보부	이형균 이사	589-1603	총괄(겸직)
	조성주 과장	589-1608	기획, 홍보
	김민재 주임	589-1609	원양뉴스, 생산통계
회원지원부	소기동 부장	589-1610	총괄
	김영수 과장	589-1611	무역제도, 수출통계
	최은혁 주임	589-1619	노사, 선원

구분	성명	전화번호	담당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1부	신현애 상무	총괄(겸직)	
		최봉준 과장	국제협력	
		백상진 주임	참치선망	
	해외협력2부	정윤경 사원	589-1615	참치연승
		진호정 부장	589-1616	총괄
		최상진 주임	589-1617	오징어, 기타트롤
부산지부	부산지부	이성재 이사	총괄	
		김현애 과장	확인업무(수출, 반입)	
	공인계량소	이동주 팀장	589-1618	차량계량
	최광준 팀장	051-253-3391	차량계량	

구분	성명	전화번호	담당	
해외수산물협업센터	센터장실	이상묵 센터장	044-868-7360	총괄
	기획운영팀	이희진 팀장	044-868-7834	행정 총괄, 기획
		김단비 행정관	044-868-7837	인사, 예산, 명예수산물
	해외진출팀	이은 행정관	044-868-7836	ODA, 해외투자교육
		신승호 행정관	044-868-7838	통계, OFIS
	국제협상팀	양재걸 전문관	044-868-7364	일반/지역수산물기구
김수민 전문관			044-868-7363	일반/지역수산물기구
-		044-868-7831	일반/지역수산물기구	
-		044-868-7833	일본/지역수산물기구	

■ 홈페이지: www.kosfa.org ■ 팩스번호(서울): 02-589-1630/1, (부산지부): 051-253-3392, (해외수산물협업센터): 044-868-7840

## 명예해양수산물관 연락처

구분	성명	연락처
사모아	오시영 수산물관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피지	김종태 수산물관	679-330-7188 ckpfj@naver.com
인도네시아	이재원 수산물관	62-0343-4742525 imsindo@hanmail.net
가나	이윤홍 수산물관	233-303-200995 skshipafrica@yahoo.com
세네갈	김점봉 수산물관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수산물관	64-3-344-1617 seajho@xtra.co.nz
파푸아뉴기니	정승화 수산물관	675-321-8137 jc651016@gmail.com
아르헨티나	이상우 수산물관	54-223-495-0712 kargeexport@gmail.com

## 해외협력자문위원 연락처

구분	성명	연락처
남아프리카공화국	조창원 자문위원	27-21-447-1634/1515 saka0505@naver.com
수리남	박관현 자문위원	597-42-2185 donghee_sur@yahoo.co.kr

**원양산업 제1161호**  
 발행처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6층  
 (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발행인 **윤명길**  
 편집인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 건강한 주부는 원앙산 생선을 좋아해~



【원앙산과 수입산 구별 요령】 원앙산은 원산지 표시를 「원앙산」 또는 「원앙산(해양명)」으로 표시하므로 '원앙산' 표기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사례 : 원앙산 또는 원앙산(대서양)>

홍조림용 참치조림 장면

원앙생선은 우리나라 어선이 잡는 즉시 선상에서 위생적으로 냉동처리하기 때문에 수입수산물과는 달리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적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b>참 치 회</b> DHA, EPA, 셀레늄이 풍부
--	-----------------------------------

	<b>참치통조림</b> 심장병 등 성인병 예방
--	------------------------------

	<b>오징어</b> 피로회복 성분, 타우린 다량 함유
--	----------------------------------

	<b>명 태</b>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
--	---------------------------

	<b>조기류(민어과)</b> 저수용 생선으로 저체
--	--------------------------------

	<b>공 치</b> 불포화지방산 다량 함유
--	----------------------------

## 원앙산 생선을 수입산과 동격 취급 마세요!



● 원앙산 생선이 수입산보다 왜 좋을까?

**01 내국물품 (우리 어선이 잡은 생선)**  
원앙산은 우리나라 어선이 외국 원양 수역이나 해외 공해상에서 잡아 직접 국내로 들어오는 생선이기 때문에 연근해산과 마찬가지로 내국 물품에 해당한다. 반면 수입산은 외국물품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02 오염우려 없는 친환경 생선**  
원앙산은 대부분 청정해역이나 오염이 되지 않은 대양에서 안전한 위생 기준(HACCP)에 의해 생산되어 식품안전성이 수입산과 달리 뛰어납니다.

**03 선상급랭 시설을 통한 우수한 신선도 관리**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은 선상급랭 시설이 매우 우수해 어획 즉시 선상에서 곧바로 급랭하여 국내로 반입되기 때문에 수입산에 비해 신선도가 훨씬 뛰어납니다.